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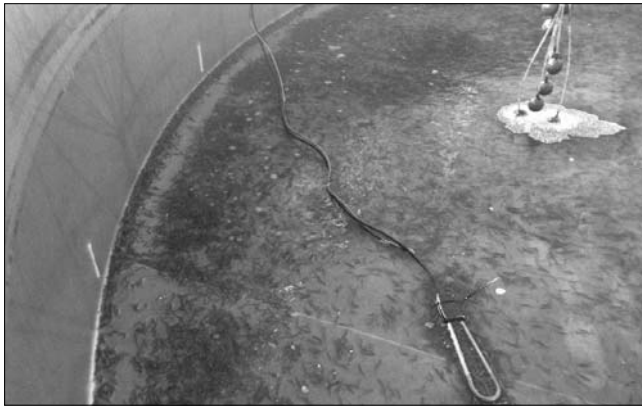
# 미당문학제 · 국화축제 '호응'

### 고창 부안면 선운리 미당시문학관 일원서 열려

고창군에서 가을 감성을 충족할 '미당문학제'와 '선사시대'가 있는 국화축제가 열렸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2016 미당문학제'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고창 부안면 선운리 미당시문학관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번 '미당문학제'는 '국화향 그윽한 질마제 문화여행'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29일 열린 기념식에는 박우정 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문학관 이사장 경우 스님, 문학제추진위 김투호 회장을 비롯한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관광객 등이 참석했다. 문학제 기간 동안 시낭송가협회 회원들이 미당 시를 읽어주고 방

문객들도 함께 시를 낭송해보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문묘치 시인과 장석남 시인의 '미당 문학특강', '제2회 전국청소년 백일장', '음악극 '질마제 신화' 공연을 비롯해 통기타, 사물놀이, 7080 그룹 시운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미당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우리의 존재'의 김행숙 시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우정 군수는 "한국인의 마음 깊이와 아름다움을 가장 세련되게 표현했던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향이자 시 세계를 탐구했던 질마제 일원에서의 문학제는 그의 서정적 문학세계를 가장 가깝게 느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문학제가 문학

전국적인 문화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창군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시작돼 내달 6일까지 고창 고인돌공원 일원에서 '선사시대'로 가는 고창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가을을 맞아 고창 여행에 나선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향기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국화축제는 대형색색 50만 주의 화단국화가 고인돌공원 일원 곳곳에 피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국화를 따라 선사체험마을과 고인돌유적까지 탐방할 수 있도록 해 풍성하게 마련된 국화전시와 선사시대 유물과 생활상 체험 등이 고창 여행의 묘미를 더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농기센터, 미꾸리 무환수 양식기술 '성공'

### 유용미생물 대량증식 유도 육성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는 1,000만마 생산능력을 갖춘 미꾸리 유수식 종묘생산 기술완성에 이어 무환수 양식기술(Bio Floc Technology) 도입 실험을 추진하여 1차 성과를 도출했다. Bio Floc Technology(BFT)는 기존 유수식과는 달리 물을 환수 하지 않고 육성수조 내 수질에 관여하는 유용 미생물의 대량증식을 유도하여 무환수 시스템으로 육성하는 것을 뜻한다. 환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며 유용 미생물이 대량으로 증식하기 때문에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여 무병, 무항생제로 육성하는 친환경적인 양

식기술이며 미래 양식 산업을 주도할 기술로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각종 품종에 대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남원시에서 도입한 BFT 기술은 각각류 양식에서 시도하는 일반적인 BFT 기술이 아닌 관내 민간 양식 어민이 미꾸리 종 특성에 맞게 개량하고 발전시킨 새로운 BFT 특허기술을 도입하였다. 기술도입을 위해 남원시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직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고 추어육성담당 직원들이 관내 특허 기술 보유 어민과 기술 교류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남원 미꾸리 사업성공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주·야간 관계없이 노력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 해리면, 국화 화분 식재

고창군(군수 박우정) 해리면이 관광객과 면민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소재지 도로변과 동호해수욕장에 국화 화분을 지난 28일 식재했다. 이번 꽃길조성은 주민과 해리면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1000여개의 화분에 있던 국화를 가로수 길에 일일이 땅을 파고 손으로 옮겨 심어 1.5km남짓의 꽃길이 완성됐다. 국화 식재로 아름다운 국화 꽃길이 조성되면서 가로경관과 소재지 미관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면민들의 심신을 달래주는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행연 해리면장은 "가을이 되면서 허전했던 거리가 대형색색의 국화 꽃길로 변해 따뜻하고 활기차게 느껴지고 있다"며 "관광객과 면민들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해리에서 마을까지 화사해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 전통장 친환경 급식재료 강자 '급부상'

### 전통장 제조 시연 · 전통메주 만들기 진행

순창군 전통장이 2016 서울 친환경 급식 한마당에서 인기를 끌며 친환경 급식 재료의 강자로 급부상했다. 군은 지난 2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된 2016 서울시 친환경 급식 한마당행사 셋째마당(전통과 창조)에서 순창군이 진행한 전통장 제조 시연 및 전통메주 만들기 행사에 구름인파가 몰리면서 친환경 급식 관계자들과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건강한 미래를 디자인하다'란 주제로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행사로 서울시 친환경급식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푸드테라피, 건강레시피, 친환경급식, 전통장, 친환경식생활교육 등 다양한 친환경먹거리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해 친숙하게 다가가고 부모와 함께

체험도 진행할 수 있게 만든 행사다. 순창군은 이번 행사에서 전통장 제조 시연 및 전통메주 만들기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순창 전통장에 대한 알고 왜 우리 전통장이 몸에 좋을 수 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전통장 제조, 미니메주 만들기, 장류 미생물 관찰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석자들이 재미있게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순창군은 이날 행사는 서울시와 공동 추진하는 전통장문화학교의 일환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전통장문화학교는 우리 고유의 발효 문화를 도시 학생들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순창을 방문해 전통기능인들과 함께 장을 담그며 우리 식문화를 배우는 사

업이다. 또 담근 장은 순창에서 6개월이상 잘 숙성해 각 학교로 보내져 급식에 사용돼 아이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사업이다. 군은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해 총 7개 초등학교 400명의 학생들이 순창을 방문해 전통장을 체험하고 우리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앞으로 서울시는 물론 전국의 친환경 급식에서 순창 전통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통장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며 "서울시 친환경급식을 시작으로 전국의 친환경 급식에 순창의 전통장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농민·학생·학부모·영양교사·조리사·등 민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은행나무 가로수 수형조절 시행

순창군이 오는 11월부터 시가지에 조성된 은행나무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을 진행해 은행나무 가로수 길을 지역명소로 가꾸고 있다. 이번사업은 순창읍 소재 시가지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통해 가로수길을 정비하는 것으로 군민 및 외지인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군은 그동안 무성하게 자란 가로수

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변 안내 표지판, 신호등, 상가의 간판 등의 가림 현상을 방지해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대상 위치는 순창읍 남원선, 중앙로, 군청방향, 광주방향 육천로 등 총 410주 은행나무에 대해 수형조절 작업을 실시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지자체 합동평가 보고서

남원시가 지난 28일 이조승 부시장 주재로 25명의 실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2016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에 대하여 9개 분야, 27개 사업, 68개 지표, 173개 세부지표로 구분하여 정부의 각 부처가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남원시의 경우, 꾸준한 추진상황 보고회 정례화를 통하여 수시로 부진지표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실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추진실적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항목 중 중점이 높은 지표의 집중관리와 경쟁력 있는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굴, 실적 향상을 위한 교육·워크숍·컨설팅 기회 확대 등 행정역량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차원의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조승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담당자간 합동평가 대응능력 배양과 철저한 평가지표 관리 및 점검기회를 늘려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부서장간 소통강화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순창경찰, 4대사회악 맨투맨 홍보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 여성청소년계는 주민 대상 1:1 맨투맨 홍보와 피드백 활동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여성청소년계는 삼가법집지역 및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4대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에 대한 인식 및 순창지역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체감안전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찰활동사항에 대해, 그에 맞는 맞춤형 피드백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아간시간대 초등학교 주변이 깜깜하고 인적이 드물어 순찰을 늘려달라는 주민의 요청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지역경찰과 연계하여 합동순찰을 강화하였고, 마을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밤길에 걱정이라는 주민의 말에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가로등설치 예산을 확보하였고, 현재 어두운 골목길을 선정하여 가로등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최규은 서장은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실제로 듣고 그에 따른 맞춤형 피드백 활동을 통하여 순창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실제로도 4대사회악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순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행사무의  
전남순창 전박산업과  
063-430-2951